

안보리, 潘총장 연임안 만장일치 통과

21일 유엔 총회에서 재선 승인 확정적

아시아인으로 우탄트 이후 45년만에 첫 재선 총장 탄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 시간) 반기문 사무총장 연임 추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무총장 추천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가 반 총장을 단일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를 채택해 유엔 총회에 제출함에 따라 21일 열리는 총회에서 반 총장의 재선 승인은 확정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반 총장의 재선이 확정되면 사상 첫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로 재선 사무총장에 등극하는 것이자 아시아인으로서는 우탄트 이후 45년만에 첫 재선 사무총장 탄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인 반 총장의 1기 5년 임기는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며, 총회 승인 절차가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2기 반기문 체제가 출범한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순회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가봉의 벨스 메소네 대사가 반 총장 연임 추천에 관한 결의 1987호를 상정하자 15개 이사국 대표들이 박수로 통과시켰다고 유엔 관계자는 전했다.

메소네 대사는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리는 사무총장 임명 추천 문제를 검토했으며, 현직에 있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두 번째 5년 임기를 할 수 있도록 지명하는 안을 총회에 추천키로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브라질을 방문중인 반 총장은 안보리 표결과 관련한 성명에서 "깊이 감사하고 영예롭게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가 해 낸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반 총장이 공식적으로 연임 출사표를 던진 이후 중국과 프랑스가 당일 강력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영국 정부가 9일 지지 입장을 발표했으며 상임이사국 가운데 러시아가 16일 마지막으로 지지 대열에 합류하면서 반 총장은 추천권과 함께 거부권을 갖고 있는 이른바 P5(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지를 모두 획득했다.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 동구권 등 각 지역그룹도 잇따라 회동을 갖고 반 총장 지지 입장을 표했고, 현재 유엔 지역그룹 가운데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남미 그룹에서도 브라질 등 주요 국가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쿠바 등 일부 남미국가들은 반 총장이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다며 지지 선언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 당초 16일 통과될 예정이었던 안보리의 추천 결의안 처리가 하루 연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관계자는 "일부 남미 국가들의 목소리는 자신들의 유엔내 존재감



남미 4개국 순방에 나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알리기 위한 제스처"라면서 "192개 전 회원국의 지지로 축복받는 재선이 되도록 하겠다는 반 총장의 생

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해 막판까지 이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F1 예산 의결 전날 민노당 의원 사무실서 도의회 직원, 시위용품 빼내다 '망신'

전남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F1대회 관련 예산 분회의 의결을 앞두고 민노당 소속 의원 사무실을 무단으로 들어가 시위용품 등을 들고 나오다 발각됐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제 260회 임시회 분회의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7시30분 도의회 청사 6층 정우대(민노·장흥 2) 의원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나오는 것을 이정민(민노·보성 1) 의원이 발견했다.

당시 직원들은 정 의원 사무실에서 'F1 대회 중단'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나오던 중으로, 이 의원은 이들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했고 의원 사무처 직원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사전통보나 양해도 없이 의원실에서 물품을 빼가도 되느냐고 따지자 직원들은 의장이 시켰다고 했다"고 말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정 의원은 분회의 임시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당시 직원들은 정 의원 사무실에 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법

적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의회 사무처는 분회의 의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사전 점검 과정에서 그랬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의회 사무처측은 "분회의장에 시위용품이 등장하는 것을 막으려다 발생한 일로, 사전 양해를 얻지 못하고 들어간 것은 잘못됐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해병대, 민항기에 오인 사격

강화 교동도 인근서 北 공군기 착각

향로 이탈 여부 논란일 듯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에 주둔하는 해병대 초병들이 지난 17일 새벽 우리 민항기를 북한 공군기로 오인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18일 "어제 새벽 4시경 교동도 남쪽 해안에서 경계를 서던 해병 2사단 5연대 51중대 초병들이 남쪽 주둔도 상공을 비행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향해 K-2 소총으로 10분간 대공 경계 사격을 했

다"고 밝혔다. 해안가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초병 2명은 개인화기인 K-2 소총으로 민항기를 향해 공포탄 2발을 포함해 총 99발을 발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당시 민항기는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인 500~600m보다 떨어진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면서 "초병들이 평소 주둔도에서 못 보던 비행기가 가까이 나타나자 북한 공군기로 오인해 사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설명했다. 중국 청두(成都)에서 승객 110명과 승무원 등 119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당시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기는 군의 오인사격 당시 5000피트(1524m) 이상의 고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항공기의 북쪽 비행 한계선이 주문도 남쪽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항로를 이탈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초병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객기가 평소보다 북쪽으로 비행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측은 정상항로로 운항 중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北 "금강산특구 재산정리 하겠다"

"30일까지 오라" 일방 통보

현대아산 "민관 논의후 대응"

북한이 17일 금강산 지구의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특구 내 부동산을 보유한 현대아산 등 남측 당사자들에게 30일까지 특구로 오라고 통보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달 말 특구법까지 제정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했던 북한이 강도를 더 높인 새 카드로 압박에 나선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특구법에 따라 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의 통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향은 앞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해 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오후 2시30분께 금강산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북측에서 문서로 통보를 받았다"며 "관계당국이나 금강산에 투자한 다른 기업들과 상의를 해보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역 육군간부 2명 체력검정 도중 숨져

현역 육군 간부 2명이 군 체력검정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께 강원도 철원군 철원공설운동장에서 서 육군 5군단 소속 강모(40) 준위가 3km 뒀길을 도중 쓰러져 인근에 있던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하고 민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오전 10시 18분에 숨졌다.

또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령부에서 최모(53) 원사가 일예 거품을 몰고 쓰러져 있는 것이 지나가던 병사에 발견돼 인근 군의관이 달려가 조치를 했으나 숨졌다. /연합뉴스

'수사권 조정 공청회' 경찰 쫓기대회 방불

이인기·최인기 의원 주최... 전·현직 경찰 2천여명 참석

경·검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수사현실의 법제화 공청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인기(한나라당) 위원장과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의 민주당 최인기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현직 경찰관을 물론, 전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 회원 등 2000여명이 몰려 경찰 쫓기대회를 방불케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경찰 지도부가 전국 각지에 있는 일선 경찰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회관 주변에는 이들을 단체로 운송한 대형버스 10여대가 늘어서 있었다.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검찰을 성토했고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추사에서 "검찰에 권한이 집중돼있다"며

"권력남용과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현실을 반영하지는 것인데 검찰이 난리를 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고, 경찰이 검찰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을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 재직 경험을 이야기하며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수사구조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 소명은 수사권 조정 법제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발언을 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10여차례에 걸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서보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힘의 균형을 위해 수사는 경찰이, 사건종결과 기소는 검찰이 담당해야 한다"며 "검사가 사법경찰보다 낫다고 말하는 논거가 무엇인가"라고 가세했다.

특히 서경진 변호사가 "현 수사 체계에 변화를 줄 만큼 문제가 있지 않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서 "말도 안된다", "그만하라"는 고함도 터져 나왔다. /연합뉴스

비세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로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완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리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전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중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후

공장직영 / 완벽한시공 / 확실한A/S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농길리강판지붕개량 061)335-8842, 010-4024-4005

동아이테크
www.dongaitech.com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빛을 잃지 않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다운 선물
빠르고 깨끗하고 경제적인 음식물 처리기, 그린퀸!
주방의 로망, 그린퀸으로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세요.
아내가 여왕으로 거듭납시다.

친환경 음식물처리기 '그린퀸' 대리점 모집

그린퀸의 특·장점 -주부의 가사노동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처리 문제, 설거지 후 터져 힘 번으로 사용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열용이 아닌 자연풍 건조시스템을 적용해 익혀 걱정, 전기세 걱정 확실하게 없애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를 80~90%까지 감량한 후 건조시켜 음식물쓰레기 총량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자원의 대부분을 수원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조된 양질의 부산물은 퇴비나 연료 등 자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수의 사업 분야
대리점 대상 -소규모 판매 (개인 판매/제휴 판매) -이차매 단가계 -공공기관	신속 인수를 대상 -단체 구매 -온라인, 전화, 방문 등
기대 대상 -특정 업종	지자체 대상 -환경친화적 사업 -지역 발전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지역 주민의 안전 증진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

그린퀸은 (주)동아이테크가 개발한 새로운 타입의 음식물처리시스템으로 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자원의순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GREEN QUEEN
1666-9001